



정읍 샘골농협,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진행

정읍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은 지난 23일 관내 농업인 조합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전북과대학,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남매안경원, 정읍시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지원,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장수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지원, 푸드 트럭 지원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농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농업인 실익 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아산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혈압 X-ray, 심전도 등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으며, 정읍시보건소에서는 구강 건강을 위한 불소도포, 구강검진, 스케일링과 한방의료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사진을 제공하였으며 정읍 남매안경원에서는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돋보기 및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공하였다. 의료 진료를 받은 농업인은 "관절이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기 미땅지 않아 파스에 의지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의진이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수중 조합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소방안전교육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낙상 방지 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재난과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교육용 CPR 더미와 소화기 등을 활용한 실제 체험 교육으로 진행, 어르신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며, 한 어르신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체험해 보니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유익함을 전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가족센터, '두근두근 미래설계' 프로그램 종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에서는 지난 22일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 '두근두근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종강했다. '두근두근 미래설계'는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서비스 탐색 등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회기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 중요한 헤어, 메이크업 교육,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5년 동안의 모습 타임캡슐 만들기 정착 선배와의 간담회 취업박람회 탐방등을 진행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자신감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 좋았으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정성철 무주군가족센터 센터장은 "이번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긍정적인 미래설계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만금 산단, 전북발전 구심점 되길”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예정지 이주지 협의회 회원과 함께 새만금 탐방

전주교도소 신축이 오랜 기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한민국교정동우회 전주지회 김재영 회장과 회원들이 전주교도소 신축 예정 이주지 협의회 단체 주민들과 함께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았다. 두 단체는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를 여행하며, 전북도민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는 새만금 개발 현장에서 서로 흥금을 터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24일 동우회 전주지회 회원 28명과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예정 이주지 협의회 회원 10명과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탐방 현장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청이 주최하여 진행되는 '활기업 축제'에도 참가하여 각종 2차전지 산업, 탄소산업, 드론, 자동차 신기술 등 새로운 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있는 신기술을 직접 보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다. 현장 탐방에 동행한 회원과 이주지 협의회 지역주민은 이주동성으로 전북발전을 위하여 전 도민들이 변화를 갈망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동안 이주지 협의회 주민과 동우회 회원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을 돌아본 교도소 신축 예정 이주지 협의회 이양구 회장은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았는데 이제 와보니 새로운 첨단 공장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최근에 새롭게 오픈하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 하루빨리 더 속도를 내어 그간 30년이 넘게 방치된 새만금 산업단지가 전북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전북의 인구 유출도 막고 전북자치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하루빨리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이주지 택지가



개발되어 우리 이주민이 입주하고 교도소 신축도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축 이전 예정 전주교도소 이주지협의회 회원과 함께 새만금 탐방을 기획한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김재영 회장은 "오전 9시 중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새만금의 넓은 지역이 아직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산업단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신축 예정 전주교도소 이주지 협의회 회원과 함께 변화를 갈망하는 새만금에서 흥금 없이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평생 교정생활에서 지내다 퇴직한 이후인 현재까지 교정 행정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기원하는 동우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미처 못 챙기는 것이 있다면 지역주민과 더 소통하여 애로사항도 알아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신축 예정 교정시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여 교정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주민자치위, 경남 사천 선구동 방문

남원시 도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강현)는 지난 10월 25일, 2024년 사천어쇼를 맞아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사천시 선구동을 방문해 우호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4년간 매년 이어온 교류 행사를 기념, 그동안 쌓아온 인연을 되새기고 두 지역 간의 우정을 더욱 깊이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남원시가 추진 중인 제2 경철학교 유치와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입법 추진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문강현 도동동 위원장은 "앞으로도 양 지역 간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신자 도동동장은 "2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온 자매결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 보행보조기 전달

남원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도연)는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사(금강 주지스님)가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행보조기 20대를 구입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평소 마을에서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기억한 마을 이장들의 추천으로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했으며, 보행보조기 전달은 1일 1가구 소동행정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황도연 인월면장이 직접 전달하면서 세심하게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안부를 살폈다. 어르신들은 "변장남이 직접 사용법도 설명해주고 안부도 물어주니 더없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지어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중앙농협, 무주군에 고향사랑 310만원 기탁

부안중앙농협 신정식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은 무주군청동농협과의 인연(2023. 7. 자매결연)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해에도 무주군에 기탁한 바 있다. 신정식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무주군청동농협과 서로의 지역에 교차 기부를 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직원들도 무주가 제2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작은 정성이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단야로타리 클럽 후원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5일 김제시단야로타리클럽(회장 최미라) 후원으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 이용장애인 30명에게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김제시단야로타리클럽 회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천연비누의 장점 설명과 시연, 체험으로 진행해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 참여 장애인은 "평소 구매하던 비누를 내가 원하는 색상과 향기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세한 설명과 친절함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미라 회장은 "작은 봉사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승택 관장은 "김제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을 약속한 김제시단야로타리클럽의 꾸준한 봉사와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 자활생산물 순회 장터 성황리 개최

정읍시는 지난 25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도내 자활생산물 순회 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지역에서 13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참여한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한 이번 순회 장터는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자활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착한 소비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소개하고,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다. 정읍 순회 장터에서는 수제 베이커리, 액세서리, 향수, 애견 간식 등 여러 제품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판매됐다. 특히 시 지역자활센터의 카페보내사업단은 커피차를 운영하며 현장을 활기있게 만들었고, 애견간식 사업단의 수제 애견간식(습식사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자활생산물 순회 장터가 소비자에게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알리고 자활센터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은주 운봉읍장, 가루쌀 수확 현장 방문

남원시 운봉읍 관계자는 이은주 읍장이 1일 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수입밀 대체용으로 재배한 가루쌀 농가의 울헤 첫 수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밀처럼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어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바로(바로 빵이 낫는 가루미) 또는 분질미(粉質米)라고 불리며 일반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밀을 대체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운봉읍의 울헤 27개 농가 45ha에서 재배한 가루쌀의 총생산량은 350t 규모로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밀 대체 가공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량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될 계획이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쌀 소비가 줄어 농가들의 고민이 깊



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루쌀 재배로 한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며, 앞으로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족한마음 행사 성료

무주소방서는 지난 25일 무주군 반딧불체육관에서 2024년 무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을 향상시키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며, 지역 방재의 핵심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약 50명의 내빈과 4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찬 무주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기술경연(소방호스굴리기, 단체출발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김장수 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갖고있는 소방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